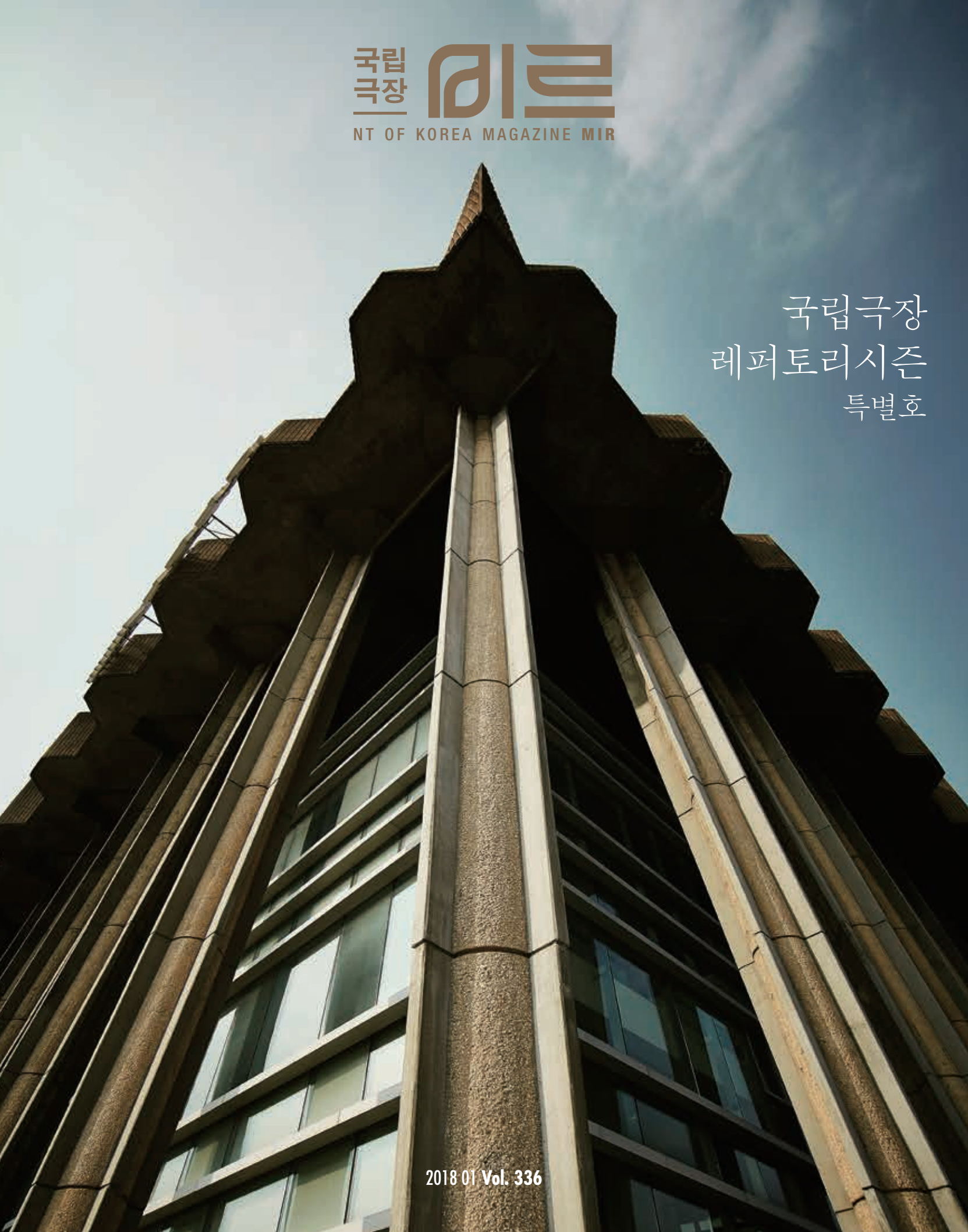
국립극장 미르
NT OF KOREA MAGAZINE MIR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특별호

2018 01 Vol. 336

CONTENTS

SPECIAL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02
EDITORIAL
시즌 특별호를 열며 이양희

66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68
맺음

NTOK

69 **1월의 기대작**
71 **문화나들이**
76 **국립극장 이용 안내**

2012-2013 시즌

04
시즌 개막작
국립창극단 '수궁가'

06
국립무용단 '도미부인'

07
국립국악관현악단 '신新, 들림'

08
국립창극단 '장화홍련'
창극 현대화의 가능성을 열다 박병성

10
국립무용단 '단'

12
국립국악관현악단 '박범훈의 소리연緣'

13
국립창극단 '메디아'

2013-2014 시즌

14
시즌 개막작
국립창극단 '서편제'

16
국립무용단 '묵향'
극대화된 한국적 아름다움 박성혜

20
국립국악관현악단 '파트 오브 네이처'

21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22
국립무용단 '회오리'

24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지금, 세상이 원하는 창극 유주현

26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

「미르」는 국립극장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연예술 교양지입니다.
'미르'는 '용龍'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용처럼 힘차게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다는 국립극장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르」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필자의 글은 국립극장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조인스 디지털가판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4-2015 시즌

28
시즌 개막작
국립무용단 '토너먼트'

30
국립창극단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31
국립창극단 '코카서스의 백묵원'

32
국립무용단 '제의'

34
국립국악관현악단 '임헌정과 국립국악관현악단'
음악계를 달군 '사건' 송현민

36
국립국악관현악단 '베스트 컬렉션'

2015-2016 시즌

38
시즌 개막작
국립창극단 '적벽가'

40
국립국악관현악단 '2015 리컴포즈'
경계를 넘는 창작 플랫폼 송혜진

42
국립무용단 '향연'
반백 년 역사를 담다 문애령

46
국립창극단 '아비. 방연'

47
국립국악관현악단 '무위자연'

48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전통에 대한 대가의 '해법' 이지현

2016-2017 시즌

52
시즌 개막작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54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상주작곡가-김성국·정일련'

56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세계를 향한 성공적 '실험' 강일중

58
국립무용단 'Soul, 해바라기'

60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마스터피스'
이 시대의 국악관현악 윤중강

62
국립창극단 '흥보씨'

64
국립무용단 '리진'

표지 국립극장 해오름
표지 사진 박진호(studio BoB)

발행인 김재숙(극장장 직무대리)
편집부장 하윤진 yjha94@korea.kr
편집팀장 박용완 parkyongwan@korea.kr

기획 및 편집 김태희 danse@korea.kr
사진 전강인 infp7@korea.kr
발행처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통권 336호
ISSN 2287-6383
발간등록번호 11-1371032-000006-06

발행일 2017년 12월 26일
편집실 국립극장 홍보팀
전화 02-2280-5831
팩스 02-2280-4086
이메일 magazine@ntok.go.kr
편집·제작 오니트(주) 02-337-3690

도전과 혁신으로
선입견을 딛고

지금 여기,
오늘의 관객과 함께

2012년 9월, 이름조차 낯선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을 시작한 국립극장이 어느새 다섯 번의 시즌을 거쳐 2017-2018 시즌을 지나고 있다.

기간을 정해두고 해당 기간의 프로그램을 미리 구성해 제공하는 극장 운영 방식 중 하나인 '시즌제'는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본격적으로 운영된 적이 많지 않았다. '시즌제'에 신작을 개발하고 재공연을 통해 '레퍼토리화'하는 시스템을 더해 '레퍼토리시즌'이 탄생했다.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0개월여를 시즌 기간으로 설정한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은 4개의 공연장과 3개의 전속단체를 보유한 국립극장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운영 방식이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남산 위의 섬'으로 인식돼온 국립극장이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관객에게 건네는 인사이기도 했다.

다섯 시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도전'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신작과 완성도 높은 레퍼토리 재공연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음을 표방한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은 3개 전속단체(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를 중심축으로 부단한 자기 혁신을 통해 관객과 소통해왔다.

레퍼토리시즌을 통해 국립극장은 전통 공연에 대한 선입견과 장르의 고정관념을 깨고 연극·뮤지컬·오페라 연출가, 패션 디자이너, 현대무용 안무가, 현대음악 작곡가는 물론 해외 안무가·연출가까지 장르와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예술가와의 작업을 과감히 시도했다. 새로운 시각으로 탄생한 공연이 전통에 기반을 둔 동시대 공연을 선보이는 극장으로 국립극장을 재인식시켰고, 보다 다양한 관객들과 폭넓게 만났다.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획 또한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의 동력이 되었다. 2013-2014 시즌 국립무용단 '춤, 춘향'과 국립발레단 '지젤', 2014-2015 시즌 국립무용단 '묵향'과 '단'을 교차 편성으로 공연했다. 2015-2016 시즌엔 프랑스 샤요국립극장과 함께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를, 2016-2017 시즌엔 싱가포르예술축제와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을 공동 제작했다. 초연과 재공연을 모두 매진시키며 화제를 모은 대형 작품 '단테의 신곡', 극장 공간에 마당놀이를 끌어들여 명실상부 겨울 시즌 공연으로 안착한 '국립극장 마당놀이', 국내 최초로 상영을 시작한 NT Live 또한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의 새로운 도전이었다.

다섯 번의 시즌을 거치며 창극과 우리 춤은 '전통'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한 동시대 관객들이 열광하는 장르가 됐다. 한계 없는 무한 변신을 통해 수많은 화제작을 선보인 국립창극단은 '수궁가'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적벽가' '흥보씨'를 통해 판소리 다섯 바탕*을 현대적 감각의 창극으로 선보였고,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배비장전' '숙영낭자전'을 통해 유실된 판소리 일곱 바탕을 재창조해냈다. 서양고전('트로이의 여인들' '오르페오전' '코카서스의 백묵원')과 희곡('장화홍련'), 소설('서편제') 또한 우리 소리와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2014년 차범석희곡상 뮤지컬 부문 수상과 프랑스 테아트르 드 라 빌 초청 공연은 대중의 중심에 우뚝 선 창극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립무용단은 '묵향' '향연'을 통해 현대적 감각을 입은 우리 춤의 엄청난 폭발력을 확인했고, 테로 사리넨 '회오리', 조세 몽탈보 '시간의 나이'를 통해 자유롭게 해석되는 우리 춤사위의 가능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입증했다. 2015-2016 시즌부터 시작된 국립무용단에 대한 세계 공연계의 관심은 칸 댄스 페스티벌·홍콩예술축제·샤요국립극장 등 주요 축제와 극장의 초청 공연으로 이어졌고, 국립창극단과 마찬가지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또한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도입 이후 다양한 국내외 작곡가 및 연주자와 교류하고, 작품을 위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곡을 창작·발굴하고 '시나위 프로젝트' '리컴포즈' '마스터피스' 등 과감한 기획 공연을 통해 관객이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재발견하도록 했다.

2012년 9월 5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이 지나온 다섯 시즌은 기대보다 우려가, 현실성보다 무모함이 앞선 것으로 보이던 국립극장의 도전이 오늘의 관객과 만나 힘을 얻고 함께 성장해온 기록이기도 하다. 화석처럼 인식돼온 전통예술과 국립극장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한국형 레퍼토리시즌의 변화와 성장을 이끈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관객들의 화답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마지막 바탕인 '심청'은 2017-2018 시즌 프로그램으로, 2018년 4월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글 **이양희** 국립극장 공연기획부장

2012-2013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2년 9월, 국립극장은 62년 역사를 새롭게 쓸 혁신적인 출발점으로
'시즌제'를 선포했다. 285일간 8개 국립 예술단체가 참여해
총 64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시즌 개막작 **국립창극단 '수궁가'**

2012년 9월 5~8일 | 해오름극장

연출 아힘 프라이어 | **작창** 안숙선 | **작곡·지휘** 이용탁 | **대본** 박성환

첫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인 2012-2013 시즌의 문을 연 작품은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의 '수궁가' 재공연이다.
2011년 초연 당시, 연출가의 색이 너무나 강해 창극의 매력을 가린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국립무용단 '도미부인'

2012년 9월 14~19일 | 해오름극장
안무 송범 | **연출·수정안무** 국수호
작곡 박범훈 | **극본** 차범석

국립무용단 초대단장 고故 송범(1926~2007)이 안무한 무용-극 '도미부인'은 1984년 LA올림픽 문화예술축전에서 초연됐다. 2012년 국립극장 공연은 1992년 송범 단장 퇴임기념 공연 이후 20년 만에 선보인 전막 공연으로, 초연 당시 도미 역을 연기한 국수호가 연출 및 수정안무를 맡아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각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신新, 들림'

2012년 9월 21~22일 | 해오름극장

지휘·구성·편곡 원일 | **협연** 정재국·김영재

'국악관현악이란 무엇이며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온 당시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원일이 직접 지휘·구성·편곡을 맡은 공연이다. 김성국 '공무도하가', 이영자 '하늘과 땅 사이 산과 바다 흐르고 그 안에 너와 나 축복이네' 두 곡이 위촉·초연됐고, 원일 편곡 '대취타'도 첫선을 보였다.

국립창극단 **장화홍련**

창극 현대화의 가능성을 열다

국립창극단은 2012년,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의 시작과 함께 창극의 다양화와 현대화, 대중화를 모토로 한 새로운 형태의 창극을 시도했다. 그 첫 작품으로 2012년 11월 막을 올린 '장화홍련'은 정복근 작·한태숙 연출의 연극 '배장화 배홍련'(2001)을 각색한 현대판 스릴러 창극이었다. 실험적인 창극 '장화홍련'의 대중적인 성공을 시작으로, '메디아' '서편제'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등 새로운 스타일의 창극 작업이 힘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창극의 물꼬를 터준 '장화홍련'은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현대 공연계에서 창극의 가능성을 한층 넓힌 작품이다.

창극 '장화홍련'은 고전소설을 토대로 하고 창극의 핵심인 소리를 매개로 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작품으로 재탄생됐다. 시대적 배경을 현대로 가져오고 모던한 의상과 무대를 선보인 것도 중요했지만, 현대적인 욕망을 지닌 인물들을 창조하고 지금의 문제의식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창극은 물론 이후 등장한 새로운 창극과도 차이를 보인다.

'장화홍련'은 전통극의 멜로드라마적인 선악 구조를 넘어선다. 동서양에 널리 퍼져 있는 계모형 소설은 사악한 계모와 그에게 학대받는 본처의 소생을 대립시킨다. 하지만 창극 '장화홍련'의 계모 허씨는 의붓딸을 극진히 아끼고자 노력하는 선한 인물로 등장한다. 오히려 어려울 것 없이 자란 장화와 홍련이 철없는 말로 허씨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유산을 더 받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 작품은 전형적인 전통극의 구조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족 이면에 숨겨진 소통의 부재와 이기심으로 분열된 모습을 폭로한다. 문제의식은 가족에만 머물지 않고 이 비극을 목격하는 주변 인물들로 확대된다. 가족의 비극을 목도하지만 이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무관심을 보여준다. 이처럼 '장화홍련'은 창극이라는 전통의 형식을 유지하지만 인물이나 문제의식은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이다.

창극 '장화홍련'은 판소리와 구음을 이용한 전통적인 소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은 모던함을 유지한다. '스릴러 창극'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안개가 자욱한 호숫가에 파란 조명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펼쳐낸다. 이를 더욱 음산하게 만드는 것이 '소리'다. 현대적인 무대와 조명, 여기에 구음과 새롭게 작창된 소리는 음침하면서도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서양악기가 들어오고 소리북이 사라졌지만 소리 본연의 매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뛰어나다. 소리는 그 자체로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동반한 음악인데, 너무 많은 악기가 배경에 놓이면 소리가 풍성해지기보다는 왜소해진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소리를 하는 대목에서는 악기 연주를 최소화하는 배려로 소리의 깊이를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한 듯하다. 창극 '장화홍련'은 전통극 양식인 창극이 얼마나 현대적인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증명해준 작품이다.

글 **박병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연극학을 공부, 월간 '더 뮤지컬' 편집장을 거쳐 현재는 국장으로 뮤지컬 관련 플랫폼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국립창극단 '장화홍련'

2012년 11월 27~30일 | 해오름극장

극본 정복근 | **연출** 한태숙 | **작창** 왕기석 | **작곡·편곡** 홍정의

국립무용단 '단'

2013년 4월 10~14일 | 해오름극장
안무 안성수 | **연출** 정구호

안성수·정구호 두 사람은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미학을
제시하기 위해 무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장식을 최대한 배제했다.
새 옷을 입은 한국춤은 땅에 뿌리를 둔 채 중력을 자유롭게 다루는
그 고유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했다. 움직임과 음악, 이미지의
세련된 통섭을 보여준 작품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박범훈의 소리연緣'

2013년 4월 19~20일 | 해오름극장
지휘·작곡 박범훈 | **안무** 윤성주 | **협연** 김영임·김성녀·김일륜 외

2012-2013 시즌 중 관객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공연으로,
객석점유율 100퍼센트 및 유료 객석점유율 85퍼센트를 기록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단장을 지낸 박범훈이 직접 지휘를 맡아,
자신의 대표곡인 '춤을 위한 나나니' '신맞이', 가야금 협주곡 '경드름',
교성곡 '용성' 등을 선보였다.

국립창극단 '메디아'

2013년 5월 22~26일 | 해오름극장

극본 한아름 | **연출** 서재형 | **작곡·작창** 황호준

음악·연출·무대·연기 등 모든 면에서
새로웠던 작품으로, 창극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창극의 본질'로 시작해
'송스루song-through 형식이 적절했다. 아니다'
'파격적이다' '감동적이다'… 호불호를 넘어
2000년대 이후 유례없는, 연극·음악계 전반에 걸친
'창극'의 회자였으니 말이다.

시즌 개막작 **국립창극단 '서편제'**

2013년 9월 13~21일 | 해오름극장

극본 김명화 | **연출** 윤호진 | **작창** 안숙선 | **작곡·음악감독** 양방언 | **편곡·지휘** 계성원

2013년 3월 초연 당시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국립창극단 레퍼토리 '서편제'가 2013-2014 시즌의 막을 열었다. 한국화를 배경으로 한 그림 같은 무대에 국립창극단 단원과 안숙선·왕기석·왕기철 등 명창들이 올라 오롯한 '소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공연이다.

2013-2014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국내 공연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지난 시즌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시도와 대중적 기반을 통해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국립무용단 **묵향**

극대화된 한국적 아름다움

국립무용단 '묵향'의 연대표를 살펴보자. 윤성주가 안무하고 정구호가 연출을 맡아 2013년 초연한 이 작품은 거의 매 시즌 재공연되며 많은 관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외 곳곳에서 공연되며 국립무용단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체로 무용 작품은 한 번 공연된 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묵향'은 초연 이후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연되고 있으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우선 '묵향'은 근거 없이 갑자기 등장한 작품이 아니다. 무용계 사람이라면 의당 기억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최현의 '군자무'(1993)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현 선생 역시 국립무용단 단장을 지낸 무용가다. 그는 자신의 작품 '군자무'에서 군자의 풍월과 멋, 흥취 등을 사군자에 빗대어 그려나갔다. 마찬가지로 국립무용단이 초연한 최현의 '군자무'는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상징하는 여인 넷을 등장시키고, 이들과 각각 춤을 추는 군자의 모습을 통해 한국의 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수작이다.

'묵향'은 선배의 시도와 작업에서 얻은 소재를 개발하고 표현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화려하고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사군자의 특성을 춤과 의상, 음악에 어떻게 접목할지 고민하면서 선행적 사례를 살펴 제작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서사보다는 이미지, 특정한 캐릭터보다는 분위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여성의 단아함과 남성의 기상, 한국적 아름다움의 주요 특성을 의상·무대·영상·음악·춤사위로 담담하게 그려나간다. 극적인 이야기도, 영웅적 모험담도 존재하지 않지만 보여주는 이미지에서 이미 충분히 한국적 아름다움을 충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묵향'에서는 한복이 지닌 독특한 곡선을 강조하기도 하고, 특히 매란국죽이 상징하는 원색을 부각해 사용한다. 의상·무대미술·조명은 사군자로 상징되는 계절의 대표적인 색깔을 선택해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했다. 가령 의상을 보자면 매화가 상징하는 봄은 꽃분홍과 흰색, 난초의 여름은 초록과 회색, 가을은 국화를 상징하는 노란색과 흑색을 사용해 계절감은 물론, 한국 특유의 색감을 살리고 있다. 여기에 정구호의 간결한 무대미술과 조명이 더해져 세련된 이미지를 가중한다.

작품의 구성 역시 탄탄하다. 서무와 사계절을 상징하는 매란국죽, 그리고 종무로 규결된다. 특히 종무에서는 남녀 무용수가 대거 출연해 클라이맥스를 이루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한 선비의 두루마기가 '묵향'을 은유하며 군자의 풍취를 더해준다. 과장된 의상 때문에 무용수의 섬세한 움직임을 관찰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와 기운으로 한국적 풍취를 드러낸 것이 '묵향'의 전략이다. 전형적인 한국춤보다는 세련된 무대와 이미지를 원하는 관객들이 열광할 만하다.

글 **박성혜**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 박사. 월간 '몸' 편집장을 거쳐 국립현대무용단 교육&리서치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다양한 지면에 춤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국립무용단 '묵향'

2013년 12월 6~8일 | 해오름극장

안무 윤성주 | **연출** 정구호

국립국악관현악단 '파트 오브 네이처'

2013년 11월 29~30일 | 해오름극장
지휘 원일 | **작곡** 김대성·안현정·정일련 | **협연** 김병오·이지영·허윤정 외

'파트 오브 네이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재독 작곡가 정일련에게 위촉해 2011년 초연한 작품이다. 국악기의 실험적 연주 기법으로 국악관현악의 스펙트럼을 확장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날 프로그램은 '파트 오브 네이처' 총 6개 악장 중 3개 악장을 비롯해 초연작 김대성 '귀천', 안현정 '흐르고 흐르노니'로 구성됐다.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2013년 12월 14~18일 | 해오름극장

극본 오은희 | **연출** 이병훈 | **작창** 안숙선 | **작곡** 황호준

조선시대 관원 배비장의 모습을 통해 고고한 척 위선
떠는 벼슬아치들의 이중성을 풍자한 작품이다.
2012년 초연(달오름극장), 2013년 재공연
(해오름극장)을 통틀어 평균 97퍼센트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했다. 작품의 주요 배경인
제주도의 색채를 살린 토속춤과
제주민요 등이 흥을 더한다.

국립무용단 '회오리'

2014년 4월 16~19일 | 해오름극장

안무 테로 사리넨 | **음악·연주** 비빙

테로 사리넨의 안무작으로, 1962년 국립무용단 창단 이래 해외 안무가와의 첫 협업작이다. 2014년 초연 당시 한국춤의 원형에서 파생된 깊이 있는 움직임에 평단과 관객의 호평이 이어졌다. 2015년 10월 국내 재공연과 11월 프랑스 칸 댄스 페스티벌 공연을 거치며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2014년 6월 11일~7월 6일 | 달오름극장

극본·연출 고선웅 | **작창·작곡** 한승석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지금, 세상이 원하는 창극

국립창극단은 2012년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의 출범과 함께 과감한 실험을 시작했다. 국내외 유명 연출가를 기용해 판소리 다섯 바탕의 재해석, 소실된 일곱 바탕의 복원, 해외 고전의 창극화 등 다양한 노선으로 창극의 새로운 무대 메커니즘을 찾는 신작들을 쏟아냈다. 그 결과 고루한 전통으로 여겨지던 창극은 어느덧 가장 '핫'한 공연예술 장르로 거듭났다. 예술가들이 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됐고,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에 대중의 기대도 높아졌다.

2014년 6월 초연된 고선웅 연출의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그런 흐름을 더욱 확고하게 한 작품으로 평가할 만하다. 창극 사상 최초로 26일간 23회 장기 공연, 4년 연속 공연, 차범석희곡상 뮤지컬 부문 수상, '세계 공연예술의 메카'라는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입성…. '옹녀'가 세운 초유의 기록들이 지금 세상이 원하는 창극이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옹녀'는 유실된 판소리 '변강쇠타령'을 복원했다는 예술적 의의가 있다. '변강쇠타령'은 19세기 신재효가 정리한 여섯 바탕에 포함돼 있지만 외설이라 외면받으며 소리가 소실됐다. 1984년 박동진 명창이 어렵게 가사를 수집해 완창했지만, 이후에도 저평가됐다. 작창·작곡을 맡은 소리꾼 한승석은 전통 소리의 맛 그대로 '옹녀'의 음악을 완성했다. 서양음악의 요소로 국악의 여백을 메우려 하지 않고 전통의 메소드만으로 고유의 매력을 살려낸 것이다. 판소리 특유의 리듬과 말맛, 언어 유희가 살아 있는 '가장 한국적인 창극'. 프랑스 관객까지 열광시킨 이유기도 하다.

그렇다고 '옹녀'가 엄청 예술적이고 격조 높은 여인은 아니다. 방점은 '대중성'에 찍힌다. 연출가 이전에 탁월한 작가인 고선웅은 '외설'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던 전통의 텍스트를 특유의 유머와 해학으로 비틀어 대중성을 확장했다. '18금 창극'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낯부끄러운 장면은 없다. 은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골남녀의 음담패설에 '기물가'류의 B급 정서 물씬한 웃음코드를 입혀 노골적으로 펼쳐내니 오히려 인간미 넘치는 로맨스로 승화된 것이다.

압권은 업그레이드된 플롯과 무대예술로서의 완성도다. 고선웅은 지리멸렬하게 마무리되는 원전의 후반부에 화끈한 클라이맥스로 승부수를 던졌다. 대중의 취향을 저격하는 '출생의 비밀' 코드로 변강쇠에서 옹녀로 중심을 옮겨오는 효과까지 봤다. 고전에서 남주인공에 가렸던 여주인공의 존재감을 앞세우는 시도가 종종 있긴 했지만 기억에 남는 성공작은 없다. '옹녀' 중심 구도는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으면서 완성도를 향해 내달렸다. 외세 침략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애환 속, 운명을 극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새로운 여성상'까지 제시한 것이다.

전통의 현대화, 고전의 재해석. 지난 5~6년간 국립창극단의 실험에 늘 함께해온 말이다.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다. 다만 '한국적 음악극'을 표방한 창극 무대를 찾는 관객은 우리 색깔을 드러내는 고유의 형식과 스타일을 보고 싶고, 그럼에도 상당히 현재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 가장 성공한 실험의 주인공 '옹녀'가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다.

글 **유주현** '중앙SUNDAY' 공연 담당 기자.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일본의 다카라즈카 가극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

2014년 6월 13일 | 해오름극장

지휘 최수열 | **작곡** 보두앵 드 제르·마이클 팀슨·다카다 미도리·치천 리

협연 이정식·다카다 미도리·김보경·민영치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한국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은
4인의 외국인 작곡가가 각자의 시각으로 전통음악을 해석해 선보인 공연이다.
보두앵 드 제르(벨기에)·마이클 팀슨(미국)·다카다 미도리(일본)·
치천 리李志純(타이완)이 각각 북청사자놀음·시나위·산조·대풍류를 재해석했다.

시즌 개막작 **국립무용단 '토너먼트'**

2014년 9월 17~20일 | 해오름극장

안무 윤성주·안성수

한국무용가 윤성주와 현대무용가 안성수가 만나 가상 왕국의 전투를 무대 위에 펼쳤다. 서로 다른 춤언어를 가진 두 안무가가 하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 전통 춤사위와 현대적인 움직임의 교차점을 찾고자 한 국립무용단의 도전적 시도로 기록된다.

2014-2015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두 시즌 동안 국립극장 고유의 레퍼토리를 축적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신작 19편, 레퍼토리 11편, 상설공연 20편이
무대에 올랐고, 전체 객석점유율이 94퍼센트에 달했다.

국립창극단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2014년 11월 20일~12월 6일 | 달오름극장

각색·연출 안드레이 서반 | **드라마투르기·협력연출** 다니엘라 디마 | **작창·소리지도** 유수정

'수궁가'에 이은 국립창극단 '세계거장시리즈' 두 번째 작품.
연극과 오페라를 넘나들며 대담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선보이는 연출가
안드레이 서반의 눈으로 '춘향전'을 새롭게 바라봤다.
열녀 춘향을 부패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여성으로 재탄생시킨 파격이 돋보였다.

국립창극단 '코카서스의 백묵원'

2015년 3월 21~28일 | 해오름극장

극본·연출 정의신 | **음악** 김성국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재일교포 극작가 겸 연출가 정의신이 브레히트의 희곡을 창극화했다. 희극과 비극에 두루 능한 국립창극단 배우들과 만나 작품의 생명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을 받았다.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2016-2017 시즌 재공연 무대에 올랐다.

국립무용단 '제의'

2015년 4월 9~11일 | 해오름극장

안무 윤성주 | **연출** 박이표 | **음악** 박우재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 다양한 형태로 지속돼온 '제의'를
소재로 삼아, 여러 의식적 행위를 현대적 굿판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윤성주 예술감독이 안무를 맡고,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시디 라르비 셰르카위와 작업해온 박우재가 춤을 위한 음악을 선보였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임헌정과 국립국악관현악단**

음악계를 달군 '사건'

2015년 4월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른 '임헌정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작곡가·작품보다 '지휘자'가 주목받은 공연이다. 임헌정이 25년간 일군 '고향' 같은 부천필하모닉이나 당시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던 코리안심포니가 아닌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한다는 것은 클래식 음악계에서 올곧이 경력을 쌓은 그와 국악을 중심으로 역사를 일궈온 국립국악관현악단 모두에 '사건'이었다.

국악관현악단이라는 함선의 키를 양악 전문 지휘자에게 내준 전례는 많다. 근래 들어 양악의 문법과 국악의 음색이 섞인 국악관현악곡이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곡을 살펴보자. 국악관현악을 위한 관현악 소묘 '내 나라 금수강산'을 쓴 고故 강준일은 양악과 국악을 아우른 작곡가로, 두 음악의 문법이 악보 속에서 서로 꼬리를 물고 있다.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은 북한식 배합관현악단을 위한 곡으로, 민족악기를 사용해 민속적 음색을 연출한다 해도 음들의 결구는 서구식 오케스트레이션 기법으로 돼 있다. 아르보 패르트가 작곡하고 김대성이 편곡한,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프라트레스Fratres'는 현악 오케스트라와 타악기를 위한 곡이다. 그리고 '천天-Heaven'의 작곡가 정일련은 현대음악 기법으로 음표를 엮었다. 국악만 고집하는 시선으로는 이 곡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연주할 수 없다. 작품의 경향이 이러하기에 국악관현악단의 지휘자들은 양악·국악을 아우르는 양수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휘대에 서기까지 서구식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와 수학의 과정을 거친다.

서구식 오케스트레이션에 능통한 임헌정은 이날 공연에서 양악과 국악이 한데 담긴 음향의 실험을(강준일), 이념을 뛰어넘는 감수성을(최성환), 새로운 음색을(아르보 패르트·김대성), 현대음악적 논리에 입각한 신비한 사운드를(정일련) 잘 이끌어냈다. 성공으로 마무리된 이날의 기억은 지휘자 임헌정을 2017년 9월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2017 마스터피스-임헌정' 공연에 재초청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이 공연은 국내의 모든 국악관현악단이 공연에 배치하는 마이크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른바 국악기의 순수한 소리를 내세운 '자연음향'을 시도한 것이다. 뜻밖의 일은 공연 뒤에 일어났다. 필자가 라디오 실황중계방송을 위해 공연이 끝난 뒤 음원을 받아 점검하는데, 현장에선 잘 안 들리던 소리와 특정 부분이 음원에서는 뚜렷하게 들리는 것이었다. 국악기의 음색을 입체적으로 만들고자 시도한 정일련의 작품이 특히 그랬다. 1,500석에 가까운 대형 극장을 '자연음향'의 숲으로 일군다는 것이 과연 섬세한 기법을 추구하는 현 작곡가들의 경향에 잘 맞는 선택일까. 누군가는 소리를 길어 올리지 못한 지휘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음향 환경의 국악관현악 공연이 갖는 문제는 지휘자의 역량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역사적 한계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 공연을 통해 서구음악의 문법에 중심을 둔 국악관현악곡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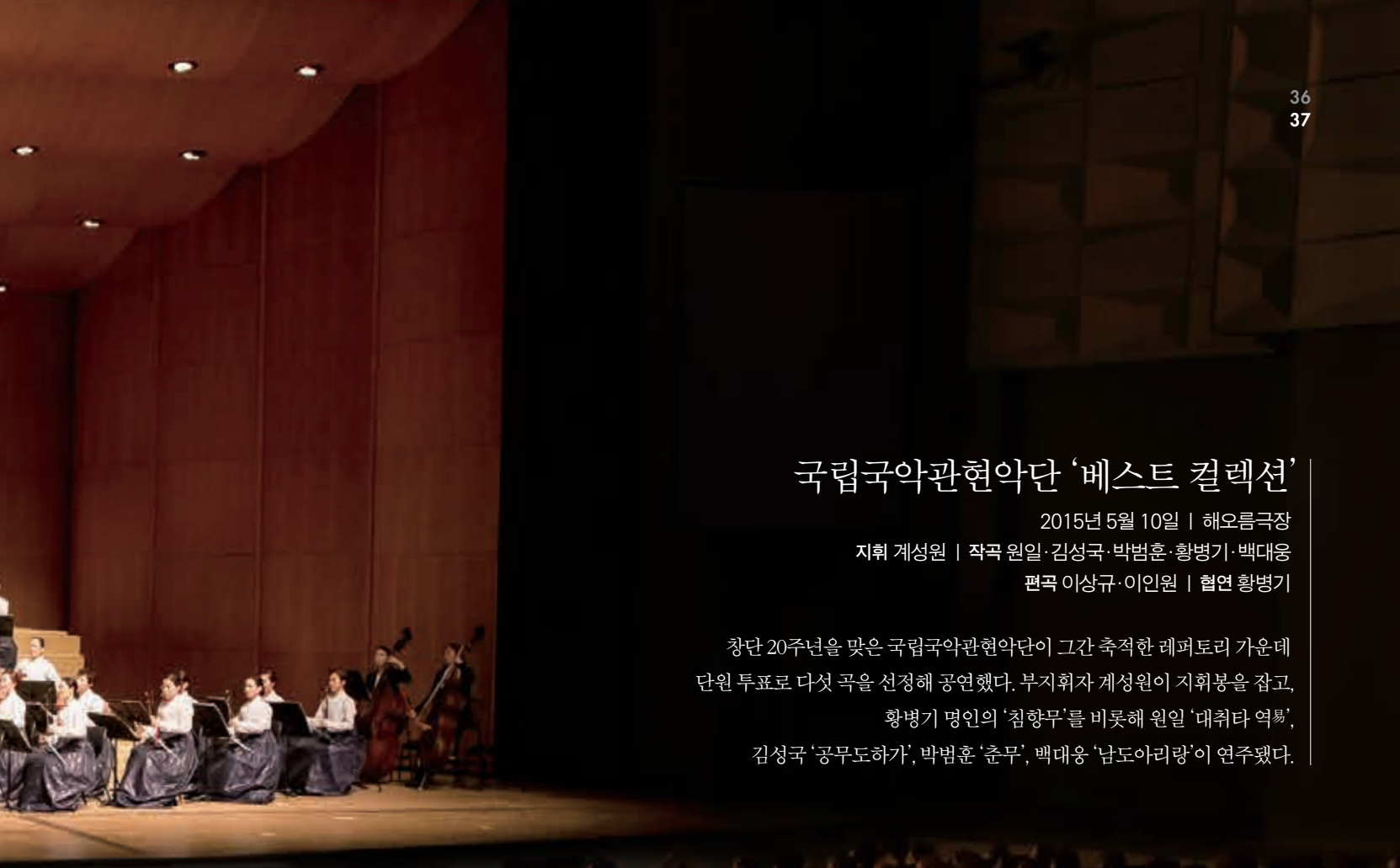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음악을 듣고 글을 쓰며 부지런히 객석과 책상을 오가고 있다. 급변하는 음악 생태계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미래를 '기획'하는 자료가 된다는 믿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임헌정과 국립국악관현악단'

2015년 4월 17일 | 해오름극장

지휘 임헌정 | **작곡** 강준일·아르보 패르트·정일련·최성환

편곡 김대성 | **협연** 백주영



국립국악관현악단 '베스트 컬렉션'

2015년 5월 10일 | 해오름극장
지휘 계성원 | **작곡** 원일·김성국·박범훈·황병기·백대웅
편곡 이상규·이인원 | **협연** 황병기

창단 20주년을 맞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그간 축적한 레퍼토리 가운데 단원 투표로 다섯 곡을 선정해 공연했다. 부지휘자 계성원이 지휘봉을 잡고, 황병기 명인의 '침향무'를 비롯해 원일 '대취타 역易', 김성국 '공무도하가', 박범훈 '춘무', 백대웅 '남도아리랑'이 연주됐다.

시즌 개막작 **국립창극단 '적벽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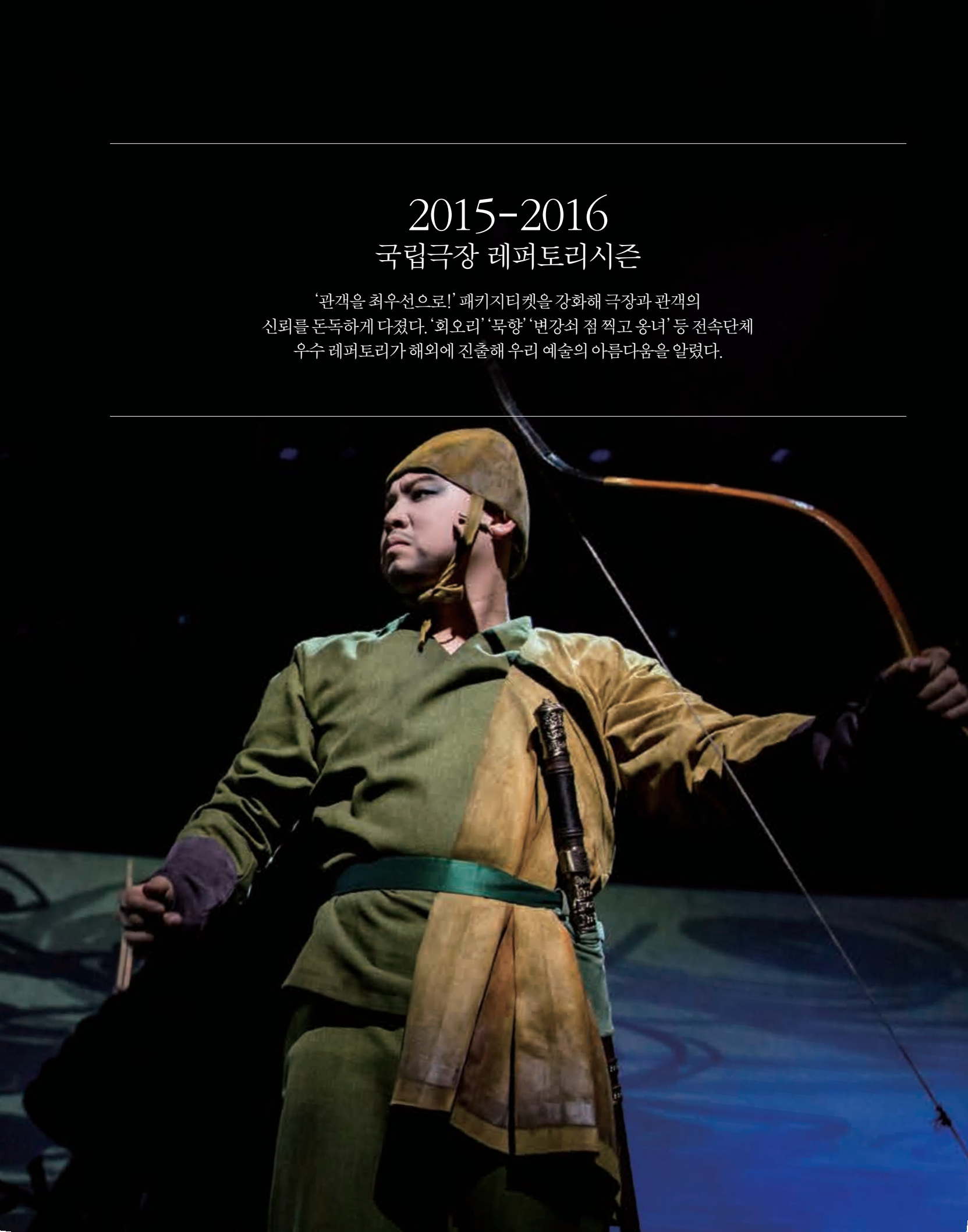
2015년 9월 15~19일 | 해오름극장

극본·연출 이소영 | **작창·도창** 송순섭 | **음악감독** 김주현

다섯 바탕 가운데 어렵기로 꼽히는 '적벽가'가 이소영 연출의
미장센으로 재탄생했다. 소리꾼의 상징인 부채·북을 활용한 무대와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영상으로 거대한 해오름극장에 전쟁의 참상을 옮겨왔다.
송순섭 명창이 무대와 오늘날 관객을 잇는 도창자로 나섰다.

2015-201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관객을 최우선으로!' 패키지티켓을 강화해 극장과 관객의
신뢰를 돈독하게 다졌다. '회오리' '묵향'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등 전속단체
우수 레퍼토리가 해외에 진출해 우리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15 리컴포즈'

2015년 11월 5일 | 해오름극장

지휘 최수열 | **작곡** 김택수·김성국 | **협연** 원완철·윤서경·이재하

국립국악관현악단 **2015 리컴포즈**

경계를 넘는 창작 플랫폼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의 여러 성과 중에서 '리컴포즈' 기획을 대표로 꼽고 싶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시즌제 도입 후 '리컴포즈recompose'라는 개념을 새로 제시했다. '오늘날'의 창작자·연주자·청중이 '옛것'을 다시 보고 재창작함으로써 현대의 전통을 만들어가겠다는 참신한 선언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는 시즌제와 밀접하게 연동된 기획이라는 점에서 좀 더 큰 기대감을 갖고 바라봤다. 장기적 안목으로 청중을 개발해나가는 큰 틀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지향점을 바라볼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 무척 반가웠다. 2014년 6월, 2015년 11월, 2017년 3월 세 번의 '리컴포즈'를 지켜보는 동안 이 기대감은 유효했고, 지속됐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2013-2014 시즌에는 해외 작곡가 네 명에게 신작을 위촉했다. 벨기에·미국·일본·타이완의 작곡가가 '북청사자놀음' '시나위' '산조' '대풍류'를 원천으로 선정해 리컴포즈했다. 작품의 구성이나 표현이 매우 낯설고 난해함에도 기획의 '화제성'이 공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잠재울 만큼 높았고, 이는 향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했다.

2015-2016 시즌에는 음악적 배경과 경험이 극도로 대비되는 작곡가 김성국·김택수를 위촉했다. 전통음악 언어에 익숙한 작곡가 김성국은 남도시나위의 전통을 대금·아쟁·거문고가 함께 하는 3중 협주곡 '내일'로 풀어냈다. 음악적 역량이 빼어난 젊은 음악가 원완철·윤서경·이재하를 기용해 연주자에 의해 표현되는 '잽이 음악'으로서 시나위의 원형성을 새롭게 드러냈다. 한편 국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리컴포즈'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 김택수는 문묘제례악의 오랜 전통 가운데 인문적 이해와 음악 구조의 고유성에 주목했다. 표출되는 음향은 생소하고 어려웠으나 국악의 전통적 표현을 현대음악처럼 바라보게 하는 곡이었다. 두 번의 '리컴포즈'에 현대음악에 뛰어난 지휘자 최수열이 함께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2016-2017 시즌에는 강순미·강은구·김대성·김혜자를 위촉하고 성악곡을 원천으로 제시했다. 강순미는 역사 속에서 한때 노래로 존재한 '수제천'을 선택했고, 김혜자는 범패, 강은구는 가곡 '이수대엽', 김대성은 제주의 향토민요를 선정해 각기 다른 생각과 방법으로 리컴포즈했다.

이 지점에서 몇 번째 시즌이 최고였는지, 어떤 작품이 좋았는지, 그리하여 대표곡이 탄생했는지를 묻기엔 성급하다. '리컴포즈'는 국악관현악 양식을 전통음악의 연장선상에서 깊이 천착하며, 전통음악의 원형을 현대로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서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해를 거듭하며 창작의 경향을 만들고 그 맥락 속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기획 자체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어렵고 오래된 음악을 난해한 현대음악 어법으로 풀어내다 보니 버거워 보이는 측면도 있다. 한숨 쉬고 돌아서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여러 기획 가운데 경계를 넘는 창작의 교차로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 시즌에도 이전의 국악관현악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리컴포즈' 무대를 만나고 싶다.

글 **송혜진** 음악평론가·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유산인 국악의 외연을 넓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무용단 '향연'

2015년 12월 4~5일 | 해오름극장

안무 조흥동 | **연출** 정구호 | **협력안무** 김영숙·양성옥

국립무용단 **향연**

반백 년 역사를 담다

시즌제 도입 이후 공연된 국립무용단 작품 중 최고를 꼽으라면 '도미부인' '시간의 나이' '회오리' '향연'이 각기 다른 의미를 강조하며 경쟁할 것이다. 송범의 '도미부인'(1984)은 한국 춤사위와 무용극 형식을 접목한 그의 대표작이다. 안무가가 타계한 작품은 예스러운 정취가 담긴 원형을 보존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 궁중무용 '춘앵전'을 보면서 현대적 멋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관객은 과거에 만들어진 춤사위를 보고 옛사람의 감성을 느끼며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 2012년 9월 재연된 '도미부인'은 국립무용단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다.

프랑스 안무가 조세 몽탈보가 2016년 3월 초연한 '시간의 나이'는 한국 전통춤에서 뽑아낸 '시간의 느낌'을 지구 환경과 인류의 감성에 적용해 점증적으로 전개한 역작이다. 국립무용단이 고수해온 '전통의 재해석'에 유럽 스타일의 안무법을 덧씌운 새로운 모델로서의 의미가 크다. 2014년 4월 핀란드 출신 테로 사리넨이 안무한 '회오리'는 사람과 회오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는, 추상적 이미지의 극치를 다룬 작품이다. 외국 안무가 두 사람은 '작품' '창작' 등의 언어 개념을 확실히 무게감 있게 다뤘고, 국립무용단의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배가했다.

과거를 보존하고, 해외 안무가와 협업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가능하지만, 2015년 12월 초연한 '향연'은 그 자체로 국립무용단의 본모습 같은 작품이다. 과거의 기방춤·마당춤이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국립무용단이 창단된 1962년에는 그 예술적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적인 동시에 동시대적인 창작을 지향한 국립무용단에 전통춤은 '창작의 샘' 역할을 했고, 전통춤을 무대공연물로 재구성해온 반백 년 역사가 '향연'의 기반이 됐다. 작품에 포함된 여러 춤 외에 '부채춤' '검무' 등으로 구성된 또 다른 '향연'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연'은 총 12개의 춤으로 구성된다. 1막 궁중무용 세 장면에 이어 '바라춤' '승무' '진쇠춤' '선비춤' 등이 연결된다. 이 중 항상 놀라움을 선사하는 춤은 단연 '장구춤'과 '오고무'다. 장구를 멘 여인들의 자태는 신비할 정도로 아름답다. 의상의 색조는 춤의 멋을 한껏 부풀린다. 초록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장구춤' 출연진은 열채로 연주를 시작해 궁채를 힘껏 내리치며 달리고 회전한다. 특별한 기교의 절정, 일상과 차별화된 예술에 심취할 수 있다.

'오고무' 역시 기예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한 사람이 다섯 개의 북을 연주하도록 연결한 악기 배치 자체도 신기하지만, 각 칸에 위치한 무용수들이 일사불란한 단계를 넘어서 기계적 몸짓으로 춤과 연주를 병행하는 모습은 경탄의 대상이다. 발레 슈즈가 발가락에 상처를 남기듯 이 춤은 무용수의 손바닥과 손목을 괴롭혔을 것이다. 국립무용단 단원의 자격 조건과도 같은 '오고무'는 장엄하면서도 섬세하고 흥겹고 화려하다. 특히 연기의 일체감은 감동적이다. 여러 작품 중에서도 '향연'은 국립무용단이 가장 잘하는 고유의 레퍼토리다. 전 세계 최고의 무대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시즌 최고의 작품으로 꼽을 만하다.

글 **문애령** 무용평론가·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월간 '몸' '객석'에 주로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 '비평적 관점에서 본 무용예술' 'Contemporary Korean Ballet' 등이 있다.

국립창극단 '아비. 방연'

2015년 11월 26일~12월 5일 | 달오름극장
극본 한아름 | **연출** 서재형 | **작창** 박애리 | **작곡** 황호준

계유정난 당시 단종에게 사약을 전달한 금부도사 왕방연의 삶을
역사적 허구로 풀어냈다. 왜곡된 부모자식 관계가 화두에 오른 지금,
창극 '메디아'로 주목받은 한아름·서재형 콤비가 다시 나서
'난세의 영웅보다 아비로 살기'를 택한 아버지의 부성애를 포착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무위자연'

2016년 4월 22일 | 해오름극장

지휘 이혜경 | **작곡** 도널드 워맥·토머스 오즈번·김영동·임준희 | **협연** 이지영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주제로 동·서양 작곡가의 작품을 선보였다.
한국음악에 매료된 미국인 작곡가 도널드 워맥의 가야금 협주곡 '흩어진 리듬',
토머스 오즈번의 국악관현악 '하루'가 위촉·초연됐고,
김영동 '단군신화'와 임준희 '어부사시사'가 함께 연주됐다.
여성 지휘자 이혜경이 포디엄에 올랐다.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전통에 대한 대가의 '해법'

"얼마나 아름다운 춤사위인가. 얼마나 감성적인가. 전통과 현대를 잇는,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저 그랑 제테*를 보라!"('르 피가로 매거진' 2016년 5월 27~28일 자, 98면) 프랑스 주간지가 보도한 이 문장에 '시간의 나이'에 대한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다.

2016년 3월,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초연된 '시간의 나이'는 프랑스 안무가 조세 몽탈보와 한국 국립무용단의 예술적 협력으로 탄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통춤으로 단련된 국립무용단 무용수들의 고유한 움직임으로 채워졌으며, 그러한 움직임이 미적인 동시에 감성적으로 완성도 있게 하나의 작품으로 담길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유럽과 아시아, 프랑스와 한국의 감각을 공통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됐다.

'시간의 나이'는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30주년을 맞아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 국립극장과 프랑스 샤요국립극장이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2016년 3월과 6월, 서울과 파리에서 공연되며 양국에서 모두 성공작으로 인정받았다.

이 작품은 1시간가량의 러닝 타임 동안 속도감 있는 춤 동작, 그것을 이중적으로 강화하는 전면의 감각적인 영상, 마이클 니먼·아르망 아마르의 음악, 그리고 라벨 '볼레로'가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치는 흐름 속에서 틈틈이, 매우 노련한 솜씨로 한국의 자연과 전통춤,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모습을 치밀하게 이미지로 담아낸다. 게다가 2장 '세계여행의 추억'에서 3장 '포옹'으로 넘어가는 심리적 가교는 한국춤의 진수를 담고 있는 '굿'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기아·난민의 이미지를 투영하면서 '박애' 정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프랑스에 없는 것은 한국에서, 한국에 없는 것은 프랑스에서 가져와 보는 이의 이성과 감성 모두를 감동시켰다.

안무가 조세 몽탈보와 국립무용단의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주는 부분은 '전통을 바라보고 활용하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세 몽탈보는 '한국의 전통'을 동시대에 적합한 공연예술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했고, 그 과제에 대한 예술적 해답을 매우 성실하게 제출했다. 그의 해법은 '한국' '전통' '프랑스' '현대'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불운을 지극히 싫어하는 안무가"('르 피가로 매거진'에서 재인용)답게 경쾌하고 긍정적인 감각으로 관객에게 쉽게 다가가도록 만들었다. 영상과 음악을 프랑스의 감각에서 가져오고 그 위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춤만이 가진 건강한 활력과 정신을 신선하고 맛깔스럽게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한국 전통에도 동시대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이 있으며, 그것을 살아 숨 쉬는 채로 현재에 데려올 수 있음을 경험했다. 이제 대가와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쉽고 아름다운' 동시대 한국춤을 데려올 차례다.

* 여기서 '그랑 제테'는 발레 동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도약'을 말한다.

글 **이지현** 춤비평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다. 월간 '춤과 사람들'을 통해 등단해 월간 '몸', 한국춤비평가협회 '춤웹진'에 비평을 싣고 있다.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2016년 3월 23~27일 | 해오름극장

안무·무대 조세 몽탈보 | **음악** 마이클 니먼·아르망 아마르·모리스 라벨

시즌 개막작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2016년 9월 23~28일 | 해오름극장

극본·연출 이소영 | **작창·작곡·음악감독** 황호준

오페라와 창극의 만남. 해오름극장의 회전무대는 거대한 방패연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뒤돌아봄'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스 신화이자 오페라로 잘 알려진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동양사상으로 풀어내며 창극의 세계화를 꿈꾼 작품이다.

2016-2017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시즌제를 통해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속단체의 약진을
이뤄낸 국립극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실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신작과 레퍼토리가 조화를 이룬 다섯 번째 시즌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상주작곡가-김성국·정일련'

2016년 10월 29일 | 해오름극장

지휘 최수열 | **작곡** 김성국·정일련 | **협연** 이경선

국악관현악단 최초로 상주작곡가 제도를 도입하고 김성국과 정일련을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일 년간 작곡가와 연주자가 긴밀하게 호흡하며 다양한 실험을 지속했고, 음향을 고려한 새로운 국악관현악 배치를 선보였다. 음악을 향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작업이었다.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세계를 향한 성공적 '실험'

지난 수년간 국립창극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거듭해왔다. 외국의 유명 연출가를 초빙하기도 했고, 해외 고전을 소재로 한 창극을 만들기도 했다. '따분한 것'으로 인식되던 창극이—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대중에 파고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공연예술로 재탄생시키려는 뜻도 있다.

2016년 11월 초연된 '트로이의 여인들' 역시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진 작품 중 하나다. 그리스 비극을 원작으로 하고, 연출도 외국인(옹켕센 전 싱가포르예술축제 예술감독)이 맡았다. 국립창극단이 다섯 시즌 동안 선보인 여러 창극 중 이 작품을 최고로 꼽은 것은 보수적인 시선으로 볼 때 다소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창극의 '대중화' '세계화'라는 화두를 생각하면 최고라 해도 손색이 없다.

'트로이의 여인들'은 배우들의 소리와 연기, 연주자들의 연주, 무대·조명·영상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전통 판소리의 중요한 특징을 참신한 방식으로 녹여내 소리가 돋보이도록 한 점이 작품을 빛나게 했다. 또 미니멀리즘을 기조로 하는 단순하고 간결한 무대에 강렬한 이미지의 영상이 반복적으로 투사되면서 메시지의 전달력을 극대화하고 관객에게 상상의 재미를 듬뿍 안겨준 것도 작품성을 높인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중요한 대목에서는 등장인물 한 명의 소리와 악기 하나의 연주만 어우러지도록 했다. 창자와 고수의 예술인 판소리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연출이다. 헤큐바가 중심인물인 장면에서는 거문고, 카산드라는 대금, 안드로마케는 아쟁, 헬레네는 피아노 연주가 배경음악이 된다. 또한 장별로 주요 인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내세워 이해와 몰입도를 높였다.

무대 중앙에 설치된, 원근법에 의해 좁아지는 것 같은 터널 모양 대형 구조물은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거대한 성벽처럼 보이기도 하고, 커다란 전선戰船의 높은 갑판이나 대형 파빌리온을 떠올리게 한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대다. 이 구조물의 안쪽과 무대 뒤편 부채 모양의 구조물 표면에 투사되는 영상의 효과도 컸다. 큰 몸짓으로 너울거리며 선수船首에서 갈라지는 파도, 하늘과 구름,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 '절규'를 연상케 하는 불길 이미지는 분노와 공포, 절규 등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와 전쟁·살육 등 대사 속 상황과 공간을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원전에는 없는 고혼을 등장시켜 인간의 우매함을 이야기하게 하는 배삼식 작가의 극본, 절세가인 헬레네 역에 남자인 김준수를 배치한 캐스팅 등 여러 요소가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을 대중성과 작품성이 동시에 빼어난 작품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초연 이후 '트로이의 여인들'은 2017년 9월 싱가포르예술축제에 초청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받은 호평이 유럽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글 **강일중** 공연 칼럼니스트. '연합뉴스'에서 뉴욕 특파원·공연 전문 기자로 활동했다. 저서로 '뉴욕 문화가 산책' '공연예술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등이 있다.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2016년 11월 11~20일 | 달오름극장

극본 배삼식 | **연출·콘셉트** 옹켕센 | **작창** 안숙선 | **작곡·음악감독** 정재일

국립무용단 'Soul, 해바라기'

2016년 11월 18~20일 | 해오름극장

안무 배정혜 | **작곡·음악감독** 페터 신들러

안무가 배정혜와 독일 재즈그룹 살타첼로의 공동 작업으로
2006년 초연 당시 한국무용 창작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평가받는
'Soul, 해바라기'가 10주년을 맞아 한층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시 공연됐다.
국립무용단 명작 레퍼토리의 새로운 부활을 알린 작품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마스터피스'

2016년 11월 25일 | 해오름극장

지휘 임재원 | **작곡** 박일훈·김만석·김성경·김승근·계성원·이경은 | **협연** 강권순·김용우·이영섭·변성금

국립국악관현악단 **2016 마스터피스**

이 시대의 국악관현악

너무도 모른다. 국악관현악의 '전성시대'를 모른다. 국악관현악이 국악의 중심이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부터 그런 흐름이 시작돼, 1980년대가 특히 그랬다. 한국음악의 새로운 원동력이었다. 불과 30년도 안 된 시절이다.

알지 못한다. 그 시절의 작품을 모른다. 때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시대의 작품은 '별로'라고 단정한다. '올드'하고, '목록'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의 국악관현악은 그때의 국악관현악에서 배울 게 많다. 국악기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국악관현악에 대한 '가능성'을 그 시절의 작곡가들이 더 많이 생각했다. 이런 국악관현악의 성장기와 전성기를 모르는 세대가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문제다. 현재의 국악관현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거의 작품에 대한 애정어린 접근이 없다는 거다. 자꾸 새로운 작곡가에게 작품을 위촉하지만 국악관현악 역사에 기여할 만한 작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악관현악에 관련된 사람조차 국악관현악을 중심에 두고 치열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에 등한해 보인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어땠을까?

서광이 보였다. 2016년 11월 공연한 '2016 마스터피스'가 그랬다. 국악관현악의 전성기를 만든 여섯 작곡가의 작품을 만났다. 그들의 작품을 그대로 연주한 것이 아니다. 옛 작품을 '이 시대의 국악관현악'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애정이 있었다. 이미 타계한 작곡가를 가장 잘 아는 오늘날의 작곡가가 작품의 장점을 더욱 살려냈고, 이 시대의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더 많이 집어냈다. 고故 김기수·김희조·이강덕·이상규·이성천·백대웅의 작품을 박일훈·김만석·김성경·이경은·김승근·계성원이 새롭게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 '마스터피스'가 재탄생한 순간이다.

국악관현악 관계자여! 지금의 국악관현악은 과거의 영예를 수성守成하지도 못하고, 한국음악의 새로운 대안代案이 되지도 못하고 있음을 아는가. 2000년대의 국악관현악에도 수작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작품을 냉정하게 살펴보라. 국악 작곡가의 층은 두텁지 못했고, 서양음악 작곡가에게 작품을 위촉했지만 기대에 부응한 작품이 과연 몇인가.

언젠가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자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연주하면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연주하고 싶은 작품을 만나고 싶다." 관객도, 평론가도 바라는 바다. 연주자가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 관객이 또다시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작품을 한번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의 작품에서 매력과 장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더욱 더 확산할 수 있는 방식을 추려보자. 세상의 모든 명작은, 어쩌면 처음엔 명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 작품을 계속 '갈고' '다듬으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자 했고, 그런 작품에 시대의 정서를 가감해나가면서 작품의 생명력을 유지했다. 국악관현악, 그리고 국립국악관현악단도 그러길 바란다. 그런 유일한 시도가 '2016 마스터피스'였다.

글 **윤중강** 국악평론가 겸 연출가. 총 열 권의 평론집을 펴냈다. 이 시대를 소재로 한 음반·공연 등을 제작하고 있다.

국립창극단 '흥보씨'

2017년 4월 5~16일 | 달오름극장
극본·연출 고선웅 | **작창·작곡·음악감독** 이자람

국립창극단이 16년 만에 새로운 버전의 창극 '흥부가'를 선보였다.
기발한 연출과 비상한 필력을 지닌 연출가 고선웅과
재주꾼 이자람이 만든 결과는 예상만큼 기상천외하고 전무후무했다.
창극이 흥행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무엇보다 젊은 단원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국립무용단 '리진'

2017년 6월 28일~7월 1일 | 해오름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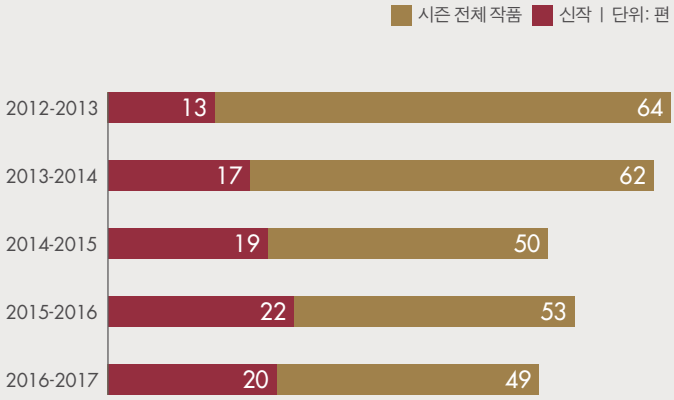
안무 김상덕 | **음악** 김성국

시즌제 도입 후 전통의 현대화, 해외 안무가와의 협업을 통한
과감한 변신으로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아온 국립무용단이
5년 만에 드라마를 강조한 무용극을 내놓았다.
김상덕 예술감독이 직접 안무를 맡아 단체의 뿌리와 같은
'한국 무용극'의 동시대적 가능성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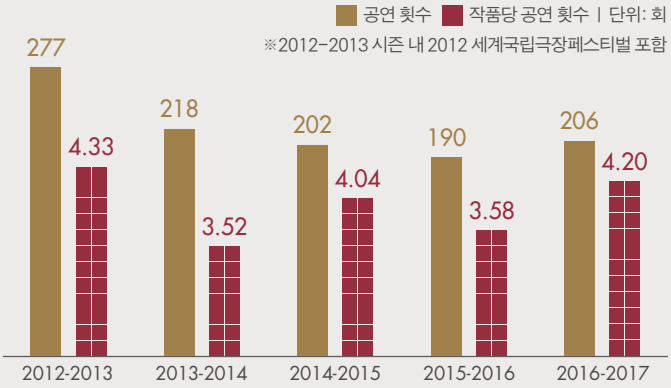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극장 운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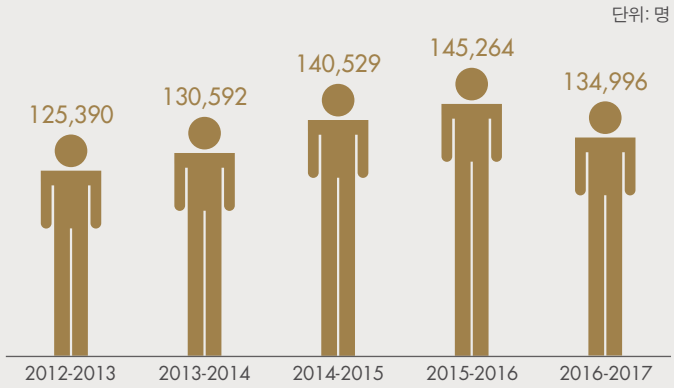
작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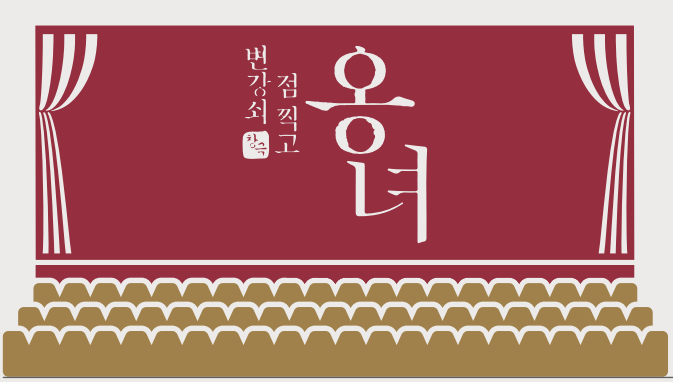
공연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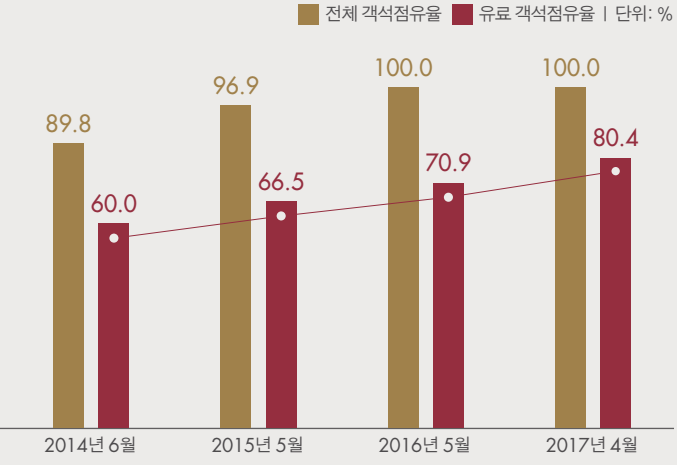


관람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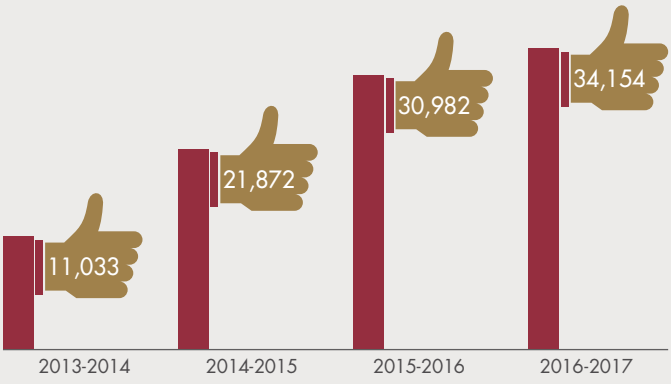
대표 레퍼토리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상승세





페이스북 페이지 팬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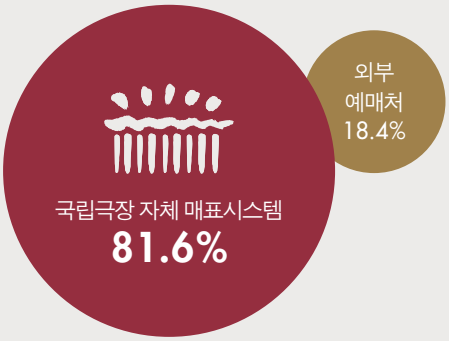


패키지티켓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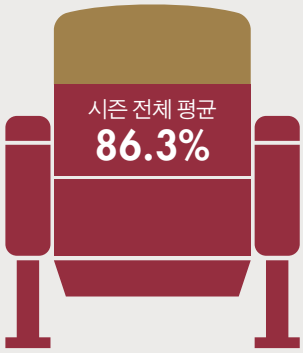
범위: 2012-2013 시즌~2016-2017 시즌

예매처별 판매율

범위: 2012-2013 시즌~2016-2017 시즌



객석점유율



최고 객석점유율을 기록한 작품

대상: 전속단체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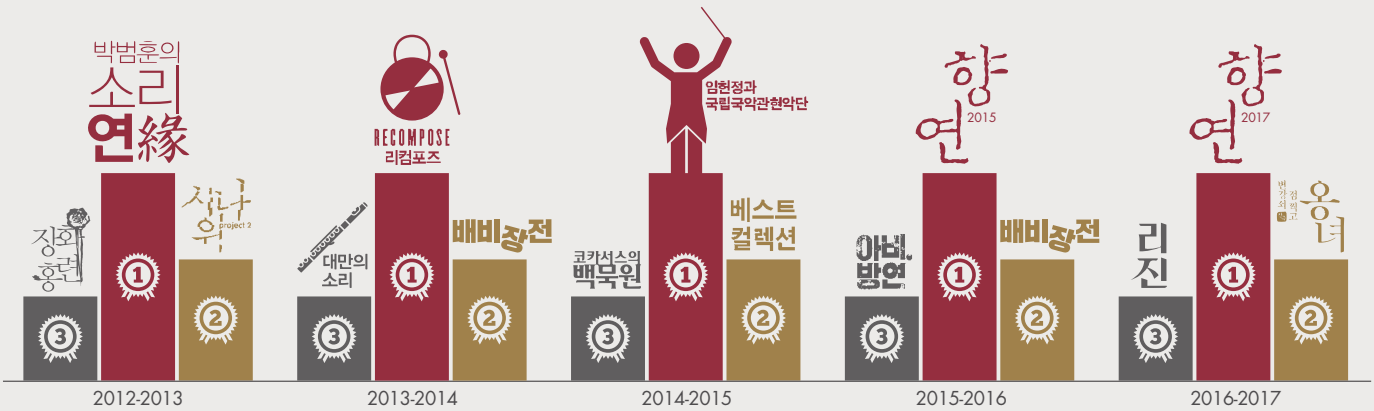


PHOTO ESSAY

맺음

국립무용단 박혜지

두렵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같은 동작을 수십, 수백 번 반복해도
뛰는 심장을 진정하기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공연 도중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공연 시작 직전까지도 무대를
떠나지 못하고 연습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렌즈를 통해 지켜보는 제삼자는
그 순간이 신비롭다.
한 사람의 염원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보기 좋은 사진은 많다.
공연 한 편을 통틀어 수백 장의 사진을
찍는데 그중 좋은 사진이 왜 없겠는가.
그러한 사진들은 공연을 관람한
또는 앞으로 관람할지 모를
관객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진가 개인의 시선으로
한 장을 꼽으라면
공연에 임박한 그 시각, 가장 큰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던 이 장면을 꼽고 싶다.

글·사진 **전강인** 국립극장 사진가

'맺음'은 단순한 끝이 아닌 '이음'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쉼표 삼아 국립극장은 또 다른 공연을 준비합니다.

1월의 기대작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2014년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9퍼센트를 기록하며 마당놀이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올해 국립극장 마당놀이는 돔형극장인 하늘극장으로 장소를 옮겨 공연된다. 무대를 둥글게 둘러싼 객석 위로 드리운 거대한 연꽃 모양 천막이 전통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불 밝힌 청사초롱 64개가 연말연시의 정취를 돋운다. 고전소설 '심청전' 속 심청·심봉사·뺑덕 등 인물은 마당놀이 판으로 옮겨져 더욱 생생하고 욕망에 충실한 캐릭터로 재탄생했다. 소셜미디어 중독자 심봉사, 봉사 전문 꽃뱀 뺑덕, 철없는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진하는 심청. 솔직하다 못해 뻔뻔해진 인물들은 오늘의 우리와 꼭 닮아 있다. 초연 당시 뼈 있는 대사로 객석을 뒤집어놓은 풍자와 기막힌 애드리브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진다. 2014년 초연 무대에서 심청을 맡아 주목받은 민은경과 탄탄한 소리 실력을 지닌 장서윤이 심청 역으로 나서며, 심봉사 역은 지난해 마당놀이 무대에서 타고난 재담꾼의 면모를 보여준 이광복·유태평양이 맡았다. 뺑덕 역에는 서정금·조유아가 더블 캐스팅됐다.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는 2018년 2월 18일까지 63회 장기 공연을 선보인다.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말연시 공연으로 제격이다.

일시 ~2018년 2월 18일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하늘
관람료 전석 5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National Theater of Korea Madangnori **Shimchung**

Shimchung which recorded a seat occupancy rate of 99% on the premiere 2014 announcing its fabulous revival has returned. This year, its stage moves into the dome-shaped Haneul Round Theater. Surrounded by 64 traditional Korean lantern with a red-and-blue silk shade and lotus-shaped huge awning around the seat, the audience can feel the traditional atmosphere. Characters including Shimchung, Shim Bongsa, and Bbaengdeok in the classic novel *Shimchung-Jeon* are reborn into the ones with more vivid desire in the madangnori stage. The social media addict Shim Bongsa, the blind digger Bbaengdeok, and 24/7 part-timer daughter Shimchung resemble us quite closely. Its splendid satire with hidden messages and improvisation come to the audience as always. Eun-Kyung Min who played as Shimchung on the premiere 2014 and Seo-Yoon Jang with the settled talent take the role as Shimchung. Two jokers, Kwang-Bok Lee and Tae-Pyung-Yang Yu, who made the madangnori stage interesting in previous year, play the Shim Bongsa. Both Jung-Kum Suh and Yu-A Jo are casted as Bbangdeok. The audience can meet madangnori *Shimchung* on the stage until February 18, 2018 for the total of 63 times. It would be the best chance to enjoy the performance with families, friends, and lovers at the end of the year.

Date&Time ~February 18, 2018 3:00 p.m. ※8:00 p.m. on Friday
Location Haneul Round Theater, National Theater of Korea
Tickets 50,000 KRW
Info National Theater of Korea 02-2280-4114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국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강릉아트센터에서 아름다운 우리 선율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진행되는 문화올림픽의 일환이다. '문화올림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을 전후해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문화·엔터테인먼트·축제·체험활동을 총칭한다. 이날 무대에선 이지수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아지토스Agitos'가 초연된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로고로 대표되는 '아지토스'는 라틴어로 '나는 움직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작곡가 이지수에게 위촉한 곡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까지 가닿은 대한민국의 뜨거운 열정을 담았다. 문형희 악장은 소금 협주곡 '파미르 고원의 수상곡'(작곡 자오디쥔趙第軍)의 협연자로 나서 맑고 청아한 음색과 화려한 기교로 파미르 고원의 이국적 풍경을 그려낸다. 우리 가락의 흥겨움을 담은 국악관현악 '신뱃놀이'(작곡 원일)가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2017년 12월 개관한 강릉아트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2018년 1월부터 두 달간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국립국악관현악단뿐 아니라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 유수의 예술단체가 무대에 오르며,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공연이 펼쳐진다.

일시 2018년 1월 24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관람료 무료
문의 강릉아트센터 033-660-6800

PyeongChang 2018 Olympic Cultural Olympiad Program

National Orchestra of Korea Special Concert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visits the Gangneung Arts Center in Gangwon-do to play the beauty of traditional melody. The concert is included in the Cultural Olympiad of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and Paralympic. "Cultural Olympiad" is a realization of Olympic values through various cultural, entertainment, and experiential activities as well as festivals to make people around the world enjoy the Olympic. The "Agitos" composed for the Korean Orchestra by Ji-Su Lee will be premiered on this stage. As a symbol of the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Agitos means "I move" in Latin.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commissioned the piece to Ji-Su Lee in order to celebrate the PyeongChang 2018 Olympics with Korean's passion. Kapellmeister Hyung-Hee Moon will perform the Sogeum (a small Korean bamboo flute) "Concerto for Pamir Mountains" composed by Di-Zun Zhao with the orchestra portraying the exotic scenery of Pamir Mountains. The "Shin Baet Nori" composed by Il Won will finalize the stage. Gangneung Arts Center which opened on December 2017 will demonstrate lots of performances during the Olympic and Paralympic period. Various artists including KNO, KNB, KNCDC, and KSO will join the stage, and traditional performance from different countries will be played as well.

Date&Time January 24, 2018 7:30 p.m.
Location Saimdang Hall, Gangneung Arts Center
Tickets Free
Info Gangneung Arts Center 033-660-6800

번역 **김진**

서울시립교향악단 **2018 신년음악회**

올해 서울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는 프랑스 출신 지휘자 파스칼 로페와 바이올리니스트 오귀스탱 뒤메가 함께한다. 파스칼 로페는 이미 다섯 차례 서울시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앙상블 앵테르콩탕포랭에서 피에르 불레즈의 조수로 활동한 그는 2017년, 서울시향 '아르스 노바'에 참여해 윤이상·백병동·버르토크 등 현대 레퍼토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오귀스탱 뒤메는 열 살 때 파리음악원에 입학해 화제를 모은 바이올리니스트다. 스튜디오 녹음 중 그의 연주에 감명을 받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그 자리에서 바로 뒤메를 베를린 필에 초청한 일화로 유명하다. 서울시향은 이번 신년음악회에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프랑스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으로 막을 열고, 뒤메가 협연하는 쇼송 '시곡'과 라벨 '치간'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생상스 '죽음의 무도', 프랑크 '저주받은 사냥꾼', 그리고 뒤카 '마법사의 제자'가 펼쳐진다.

날짜·장소 2018년 1월 7일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2018 금호아트홀 신년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어느 인터뷰 기사에선가 클럽에도 가고 축구도 좋아한다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대답을 읽으며 미소를 지은 기억이 난다. 모범생인 줄만 알았던 앳된 청년의 활기 넘치는 모습이 좋았다. 양인모는 2014년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에서 2위에 오르고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1위를 거머쥐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미리암 프리트를 사사하고 있다. 그는 2018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돼 더욱 바쁜 한 해를 보낼 예정이다. '상주음악가'라는 이름을 달고 일 년간 다섯 차례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무대인 금호아트홀 신년음악회에서는 힌데미트·이자이·그리그로 구성된 현대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오는 5월에는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치오', 6월에는 쇼스타코비치·라벨의 피아노 트리오를 들려준다. 젊은 연주자의 굳센 패기가 완연하다.

날짜·장소 2018년 1월 11일 | 금호아트홀
문의 금호아트홀 02-6303-1977

2018 신년음악회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새해맞이 행사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신년음악회를 선택할 것이다. 빈 신년음악회는 나치 치하 고위 간부들의 입김으로 시작됐다는 말도 있으나, 이제는 빈 필의 유서 깊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신년음악회 프로그램으로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품은 경쾌한 춤곡 '왈츠'다.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가 남긴 왈츠는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춤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 산드로 쿠투렐로가 설립한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는 매해 초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며 신년음악회의 기운을 세계 곳곳에 전달하고 있다. 이들의 무대에는 오케스트라와 발레 앙상블이 함께한다. 카드리유·폴카·왈츠 등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을 중심으로 브람스 '헝가리 춤곡', 드보르자크 '슬라브 춤곡' 등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준비했다.

날짜·장소 2018년 1월 22일 | 롯데콘서트홀
문의 브라보컴 1661-1605

연극

발렌타인 데이

연극 '발렌타인 데이'는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발렌티나의 60번째 생일 파티 장면으로 공연이 시작된다. 까쨔는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들고 등장한다. 발렌티나의 생일은 까쨔의 남편 발렌틴의 기일이기도 하다. 발렌티나의 생일 파티가 끝나자 돌연 열여덟 살 발렌틴과 발렌티나의 대화 장면으로 전환된다. 세 사람의 어긋난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집요한 통찰을 보여준다. '발렌타인 데이'는 극작가이자 배우로 활약한 이반 곤차로프가 창작한 희곡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공연된 러시아 연극은 푸시킨·체호프 등의 고전이 주를 이뤄왔다. 동시대 러시아 희곡을 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에 이번 공연이 각별하다. '보이체크' '갈매기'의 협력연출로 시작해 다수의 작품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김종원이 러시아 유학 경험을 살려 이번 작품의 번역과 연출을 맡았다. 정재은·이명행·이봉련·최아령이 호흡을 맞춘다

날짜·장소 ~2018년 1월 14일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문의 예술의전당 02-580-1300

©대전예술의전당

가족음악극 한여름 밤의 꿈

서울시극단은 2009년부터 '어린이 셰익스피어 시리즈'를 선보였고, 2015년부터는 온 가족을 위한 '쉽게 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겨울방학 동안 가족 단위 관객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 선보인 '템페스트'(2015)와 '십이야'(2016)는 "유쾌한 무대"라는 호평을 받으며 객석을 가득 채웠다. 올겨울 선보이는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의 시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희곡이다. 극작가 오세혁이 아이들의 정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본을 만들었다. 한여름 밤, 정전으로 인해 마트가 아수라장이 된다. 마트 판매원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책 '한여름 밤의 꿈'을 읽어준다. 마트 곳곳은 책 속 배경인 요정이 사는 숲 속으로 변모한다. 장난꾸러기 요정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선율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썬샤인의 전사들' '달나라 연속극'을 연출하며 주목받은 부새롬이 이번 작품의 연출가로 참여한다.

날짜·장소 2018년 1월 5~28일 | 세종M씨어터
문의 서울시극단 02-399-1794

블라인드

주인공 루벤은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청년이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난폭한 행동을 일삼는다. 루벤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위해 책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한다. 어릴 적 학대로 인해 온몸에 가득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마리는 루벤에게 책을 읽어주고, 둘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진정한 교감을 이뤄나간다. 2007년 네덜란드에서 개봉한 영화 '블라인드'는 토론토 영화제를 비롯한 유수의 영화제에서 주목 받았다. 국내 미개봉작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회자되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얻어 연극으로 올린다는 소식이 어느 때보다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여러 작품에서 감성적인 연출로 관객을 사로잡은 오세혁이 연출을 맡았다. 루벤 역은 연극 '엘리펀트 송'에서 활약한 박은석과 뮤지컬 '뉴시즈'의 이재균이 캐스팅됐다. 루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마리 역에 김정민과 정운선이 이름을 올렸다.

날짜·장소 ~2018년 2월 4일 | 수현재씨어터
문의 나인스토리 02-3672-0900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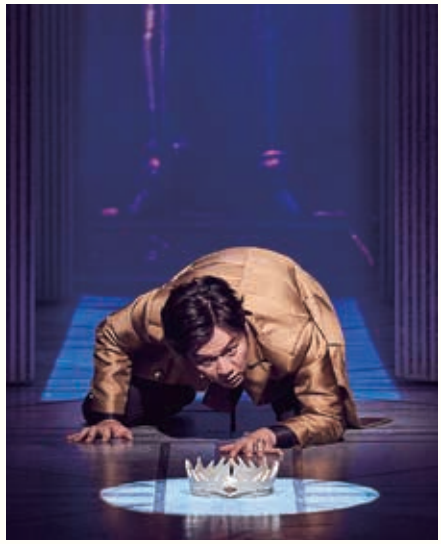
일본 소설가 야마다 무네키의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은 사랑을 갈구한 여인 마츠코의 기구한 삶을 다룬다. 도쿄에서 백수 생활을 하던 쇼 앞에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온다. 행방불명인 고모 마츠코의 유품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쇼는 허물어져가는 아파트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고모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마츠코의 일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31년 전, 착하고 바른 중학교 교사였던 마츠코가 괴물 같은 폐인이 되기까지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펼쳐진다. 일본에서는 감각적인 영상미가 돋보이는 영화로 제작돼 한차례 주목을 받았다. 뮤지컬 '명동 로망스' '파리넬리'를 통해 섬세한 연출을 보여준 김민정이 이번 작품의 극작과 연출을 맡았다. 음악감독으로 뮤지컬 '빨래'의 작곡가 민찬홍이 나섰다. 적극적인 여자 마츠코 역은 배우 박혜나와 가수 아이비가 연기하고, 마츠코의 제자이자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한 류 요이치 역은 배우 강정우·강동호·전성우가 맡았다.

날짜·장소 ~2018년 1월 7일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시스터 액트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스터 액트'가 첫 내한 공연을 한다. 1992년 개봉한 영화는 우피 골드버그 특유의 코믹한 연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주목 받았다. 엄격한 규율 속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수녀들이 경건한 성당에서 합창을 하던 중 돌변한 모습으로 '그를 따르리I Will Follow Him'를 부르는 장면이 특히 화제가 됐다. 영화의 주인공 우피 골드버그가 뮤지컬 프로듀서로 나섰고, 제리 잭스가 연출을 맡았다. 작곡가 앨런 멩켄·작사가 글렌 슬레이터 등 브로드웨이에서 활약하는 제작진이 대거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뮤지컬은 원작과 다르게 캐릭터마다 독특한 매력을 불어넣은 것이 특징이다. 들로리스는 동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게 된다. 사랑과 우정 등 보편적인 가치가 녹아 있는 이야기가 연말연시,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을 선물한다.

날짜·장소 ~2018년 1월 21일 |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문의 EMK뮤지컬컴퍼니 1577-6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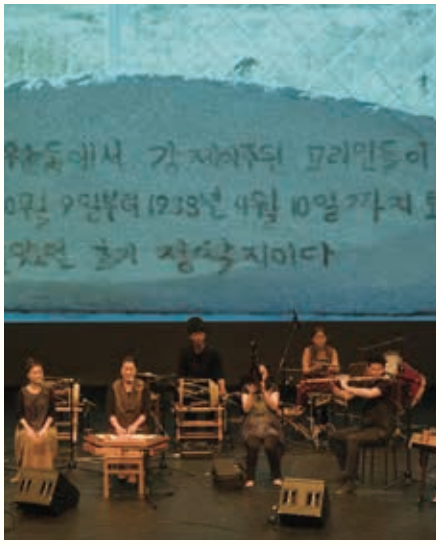


햄릿-얼라이브

햄릿이 던지는 날카로운 메시지는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다양한 캐릭터는 고전 속 인물임에도 오늘날 의미 있는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서거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햄릿'은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다. 창작 뮤지컬 '햄릿-얼라이브'는 10년간의 준비를 거쳐 탄생했다. 뮤지컬 '모차르트!' '번지점프를 하다' '스위니토드'의 연출가 에이드리언 오스먼드가 이 작품의 연출과 각색을 맡았다. 그는 특유의 섬세함으로 인물의 심리와 극의 정서를 극도로 세밀하게 포착해낸다. 오스먼드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치밀하게 분석했는데, '얼라이브alive'라는 부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하고 있다는 그의 해석을 담은 것이다. 뮤지컬 '막돼먹은 영애씨' '푸른 눈 박연'을 선보인 작곡가 김경육이 음악을 맡았다. 햄릿 역은 배우 홍광호·고은성, 클로디어스 역은 배우 양준모·임현수, 왕비 거트루드 역은 김선영·문혜원이 함께 한다.

날짜·장소 ~2018년 1월 28일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국악



아리랑, 삶의 노래-흩어진 사람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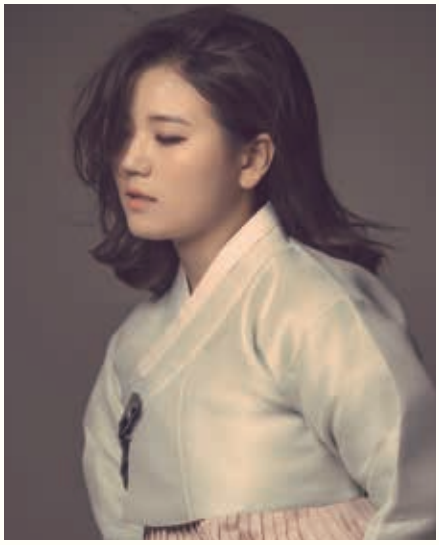
2000년 창단한 정가악회는 가곡에서부터 판소리·민요까지 다양한 장르를 바탕으로 한 국악의 현대화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공연예술 창작산실'에 지원해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아리랑, 삶의 노래-흩어진 사람들2'는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연해주로 강제 이주된 한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고려인들은 독립과 한반도의 평화를 외쳤지만 광복이 되어서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가악회는 고려인 포로의 삶을 추적하고, 이들의 아리랑을 살폈다. 그리고 이번 무대에 100년 전,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고려인의 '아리랑'을 현대적인 창작음악으로 재구성해 올린다. 이들의 아리랑을 따라가다 보면 한인 이민사의 한 페이지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2017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22편의 작품이 3월 25일까지 공연된다.

날짜·장소 2018년 1월 12~13일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문의 정가악회 02-583-9979

겨울국악동화

지난 한 해 동안 국립국악원이 진행한 '토요국악동화'가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겨울방학을 맞아 '토요국악동화'가 '겨울국악동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왔다. 지난 공연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세 편의 작품과 한 편의 신작이 무대에 오른다. 네 작품은 각각 한 주씩, 총 4주간 공연된다. 기존 작품 중에는 '푸니와 햄버거'(2017년 12월 21~23일), '평강공주와 온달바보'(2017년 12월 28~30일), '붓바람'(1월 4~6일)을 다시 선보이고, 신작으로는 국립민속국악원의 '소리꾼과 피노키오'(1월 11~13일)가 추가됐다. 동화 '피노키오'를 각색한 '소리꾼과 피노키오'는 두 명의 소리꾼이 들려주는 '판소리 동화'다. 원세은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이 대본과 작창, 연출을 맡고, 김송·정승희·윤이나 단원이 소리꾼과 악사로 출연한다. 기존의 판소리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놀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공연이다.

날짜·장소 ~2018년 1월 13일 |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문의 국립국악원 02-580-3300



수어지교3-판소리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라는 뜻을 지닌 '수어지교水魚之交'는 서울돈화문국악당과 예술가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연희·타악', 2017년에는 '산조'를 주제로 선보였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판소리'다. 2017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32개 팀(또는 개인)을 선정했으며, 전통 판소리부터 창작 판소리까지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다. 공연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새해 2월 9일까지 계속된다. 각자의 개성을 지닌 여러 작품 중에는 완창판소리 무대도 네 차례 계획돼 있다. 1월에는 최보라의 보성소리 '수궁가'(9일), 김윤아의 동편제 '흥보가'(19일) 완창이 진행된다. 전통을 새롭게 창작한 무대도 흥미롭다. 정은송의 '유관순열사가'(12일), 판소리 다섯 바탕을 세 사람의 음색으로 전하는 오ㅍ롯이의 '뜻밖의 오ㅍ바탕'(16일), 판소리 '심청가'와 춤의 조합을 선보이는 유선후의 '춤을 부르는 판소리-편지'(25일) 등이다. 판소리와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해보자.

날짜·장소 ~2018년 2월 9일 | 서울돈화문국악당
문의 서울돈화문국악당 02-3210-7001~2

김종영, 작품71-6, 1971

20세기 서화미술거장1

김종영, 붓으로 조각하다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이 '오늘날의 서예'를 모색하기 위해 '20세기 서화미술거장전'을 기획했다. 첫 번째 순서로 조각가 김종영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종영은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로 불린다. 글공부를 중시하는 가풍 속에서 성장했고, 서울대학교 조소과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지난 세기는 서화에서 미술로의 전환기였다. 한국 미술계는 서화와 미술 모두에 정통한 작가가 필요했고, 두 장르를 비교하고 혼융해 새롭게 정제된 한국 미술을 창달하는 작업이 요구됐다. 김종영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서예와 조각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타인의 기호에 맞춘 예술 작품을 지양한 그는 작품에 작가 내면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미술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했으며, 치열한 작가 정신을 덕목으로 삼은 그의 예술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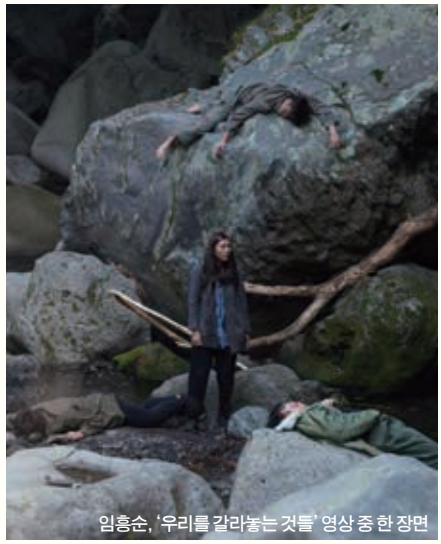
날짜·장소 ~2018년 2월 4일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문의 김종영미술관 02-3217-6484

©2001 Studio Ghibli·NDDTM

스튜디오 지브리 대박람회-나우시카에서 마니까지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다카하타 이사오와 미야자키 하야오가 1985년 설립한 스튜디오 지브리는 깊은 주제 의식을 가진 작품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발돋움했다. 특히 2001년 개봉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개봉 당시 일본 영화 시장에서 최고의 수입을 달성하며 흥행했다. 2001년에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구상한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이 개관했고, 이내 일본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이번 전시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30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1984)부터 '추억의 마니'(2014)를 거쳐 현재까지 쉼 없이 이어지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영화 포스터를 비롯해 각종 드로잉·기획서·굿즈 등 수많은 자료로 전시장을 채웠다. 또한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 제작한 '하늘을 나는 기계들' 실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날짜·장소 ~2018년 3월 2일 | 세종미술관
문의 하나티켓 1566-6668


임흥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영상 중 한 장면

MMCA 현대차 시리즈 2017

임흥순-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6.25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분단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무의식에 유령처럼 스며들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내 중진작가를 지원하는 연례 프로젝트 'MMCA 현대차 시리즈'가 2017년 주인공으로 영화감독 임흥순을 선정했다. 그는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큐멘터리 영화와 공공미술 작업을 해온 작가다. 그동안 전시장과 극장, 생활공간을 오가며 작품을 만들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끌었지만 끝내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은 영화 '위로공단'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는 잔혹한 역사 속에서 부서져버린 평범한 사람들의 사적인 시간을 서사적 이미지로 복원했다. 전시는 그 자체로 오는 3월 개봉할 그의 장편영화에도 담길 예정이다. 영화의 배경으로도 쓰이는 전시장은 4월까지 이어지는 전시 기간 내내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으로 연출된다.

날짜·장소 ~2018년 4월 8일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2-3701-9500

글 **장혜선** 바른 시선으로 무대를 영원히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글을 쓰고 있다.

티켓 예매 및 회원가입 안내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ntok.go.kr

예매 수수료 없음, 엔톡NTOK 회원 가입 시 최고 20% 할인율 제공

전화 및 현장 예매

콜센터 02-2280-4114(오전 9시~오후 6시, 연중무휴)

해오름극장 지층 고객지원센터 방문

할인 안내

종류	할인율		비고
엔톡NTOK 회원	최고 20%	1인 4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회원
문화융성카드		제한 없음	문화융성카드 결제 시 할인
임산부	20%	본인	산모수첩 소지자
다둥이 카드			다둥이카드 소지자
문화패스(청소년 등)	30%	본인	8세 이상 24세 이하, 대학생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 소지자
경로	50%	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대상자
장애유공자		1인 2매	복지카드 소지자

※공연별 할인율은 주최 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수령 시 증빙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극장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후 도보·버스 이용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하차 후 버스 이용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하차 후 버스 이용
간선버스 420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남산순환버스 02·03·05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무료 셔틀버스

공연 전

타는 곳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남산순환버스 정류장 앞

운행구간 3호선 동대입구역 → 국립극장

운행시간 공연 1시간 전부터 20분 전까지 10~15분 간격으로 운행

공연 후

타는 곳 해오름극장 앞 문화광장

운행구간 국립극장 → 3호선 동대입구역 →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운행시간 공연 종료 직후

주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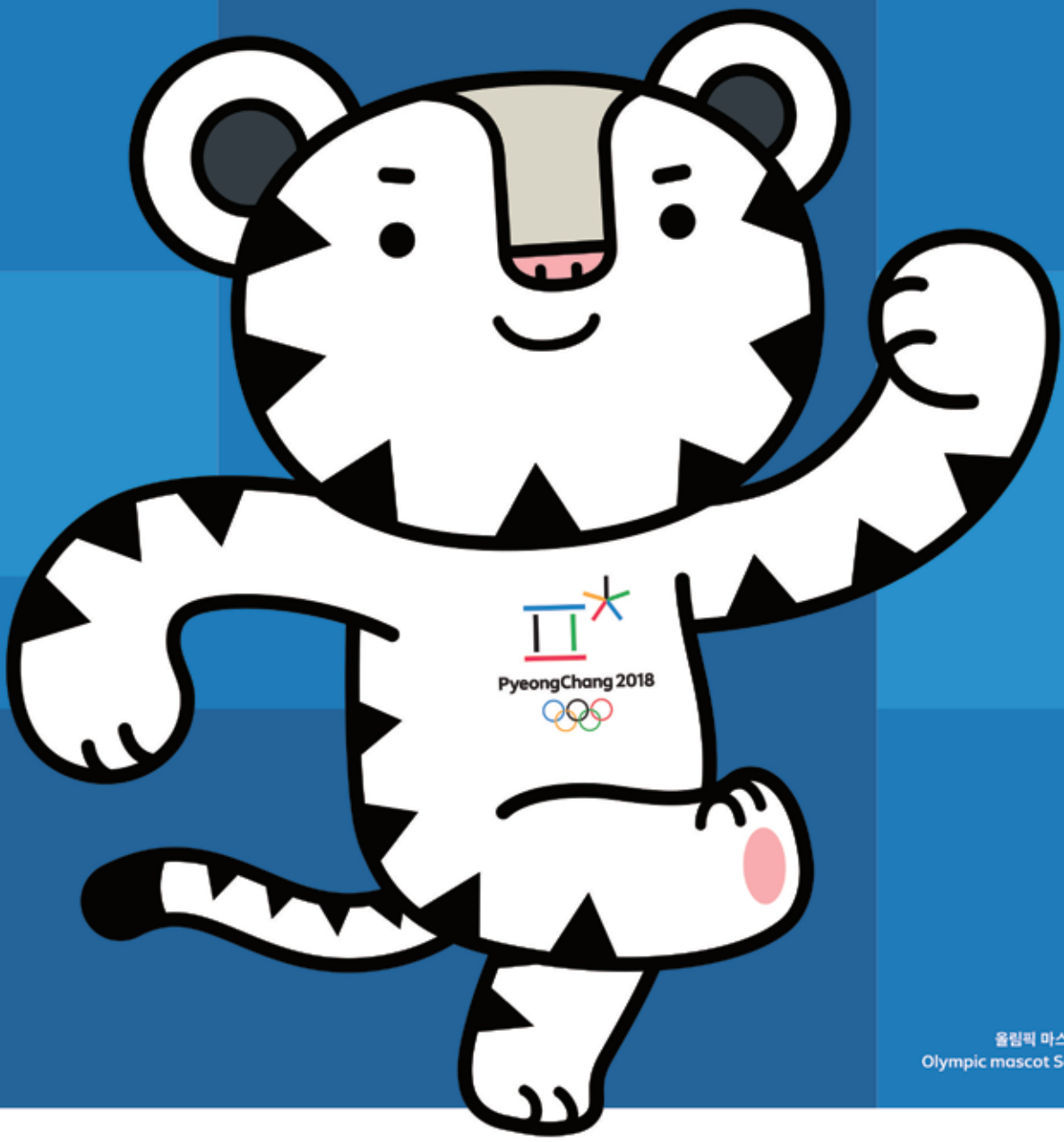
국립극장에는 380여 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연 관람 시 5시간 미만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요금 안내

공연 관람 시	사전 정산(극장 내 정산소·정산기 이용)	3천 원
	사후 정산(출차 시 티켓 제시)	4천 원
일반 이용	최초 30분 1천 원 이후 10분당 500원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

PyeongChang 2018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Olympic mascot Soohorang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9-2.25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

극본 김지일
각색 배삼식
연출 손진책

작곡 박범훈
안무 국수호
연희감독 김성녀

주최·주관 국립극장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沈 淸

2017. 12. 8 – 2018. 2. 18
국립극장 하늘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7-2018

관람료 전석 5만원

국립극장
02-2280-4114 / ntok.go.kr

인터파크
1544-1555 / ticket.interpark.com

티켓링크
1588-7890 / ticketlink.co.kr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독 자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휴대전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9.12.31.

서울중앙우체국 승인
제40370호

국립극장 미르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월간 「미르」 담당자 앞

0 4 6 2 1

2012-2013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 국립무용단 '단'

1월호 독자의견

의견을 보내 주시면 추첨하여 공연 초대권 등 선물을 드립니다.

---

01 「미르」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02 이번 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03 「미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